

해경청, '23년 안전파트너로 위험구역 안전관리 활동 마무리

- 연안안전지킴이, 인명구조 12명, 안전계도 136,967명 등 연안사고 예방활동 활약 -

해양경찰청(청장 김종욱)은 “올해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한 연안 안전지킴이 활동이 성수기 연안 사고 예방효과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”고 평가했다

연안 안전지킴이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, 행락 수요가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104개소에 208명이 배치되어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 사고 예방 순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했다.

지킴이의 주요 활동 실적으로는 목포 동명항 내 추락한 익수자를 발견 후 사다리를 이용 직접 구조하고, 울산 산하 해변에서 물놀이객의 위험을 인지하고 직접 입수 구조하는 등 모두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으며, 인근 행락객 136,967명을 대상으로 고립 방지를 위한 물때 안내와 추락 방지 안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안전 펜스 등 총 40,648건의 안전 관리시설물을 함께 점검하였다.

특히, 인명구조 장비함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시설물의 경우는 노후나 부족한 부분 발견 시 지자체 등 설치기관에 즉시 보강 요청하는(요청 70건, 반영 65건)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에 노력했다.

< '23년 연안안전지킴이 주요 활동사례 >

- ❖ (보령서) '23. 6.2. 13:00, 아목섬(죽산 갯벌) 탈진한 조개채취객 4명(탈수1, 일사병3) 발견, 연안안전지킴이 차량이용하여 육지까지 이송 완료
- ❖ (목포서) '23.6.30. 09:36, 동명항 내 선박과 안벽사이 남성 1명(60대) 해상 추락 발견, 연안안전지킴이 사다리 이용하여 직접 구조 완료
- ❖ (부산서) '23.7.23. 09:30, 금양제빙물양장 앞 순찰 중 쓰러진 취객(남성, 이하미상) 발견, 연안안전지킴이 안전조치 및 119에 인계 완료
- ❖ (울산서) '23.8.17. 15:20, 산하해변 순찰 중 물놀이객(2명) 파도에 외해로 밀려가는 것 발견, 연안안전지킴이 관할 파출소에 긴급통보 및 직접 입수구조 완료

또한, 올해 지킴이 활동으로 배치 장소에서의 연안 사고는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여 68건에서 46건으로 32% 감소하였으며,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8명으로 20% 감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.

《 최근 5년 대비 활동장소의 사고발생 현황 》

구분	5년 평균('18~'22년)							2023년						
	합계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합계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
사고(건)	67.8	12.6	11.4	11.2	11	12.4	9.2	46	9	7	8	11	6	5
사망(명)	10	1.8	1	2.2	1.8	2.2	1	8	0	2	1	4	1	0

해양경찰청 관계자는 “연안 안전지킴이는 연안 사고 예방 강화를 목표로 '21년 첫 시행 이후 연안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민간 협력 단체로 자리매김하였으며, '24년도는 연안 사고 주요 발생 장소를 종합 분석하여 배치구역을 신규 선정하고,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안 안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 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해양안전과 안전기획계	책임자	과 장	지국현 (032-835-2048)
		담당자	계 장	김석규 (032-835-2139) (010-4339-4469)